

물질주의 성향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金容淑·李玉熙

순천대학교 의류학과

본 연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성향, 충동구매성향 및 과시소비성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물질주의성향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각 집단별로 의복구매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시장세분화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또한 지역점포의 활성화와 마케팅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와 충동구매 및 과시소비성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둘째, 물질주의와 충동구매 및 과시소비성향의 상관관계와 충동구매와 물질주의성향이 과시소비성향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본다.

셋째, 물질주의성향에 따라 세분된 집단의 의복구매행동에 대하여 알아본다.

연구대상은 순천시내에 거주하는 20~50세의 여성 3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빈도, 백분율, 피어슨의 적률상관분석, χ^2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연구대상자의 물질주의성향의 평균은 2.91(표준편차 0.47)점이며, 충동구매와 과시적 소비성향의 평균은 각각 2.90(표준편차 0.80)점과 2.48(표준편차 0.65)점으로, 나타났다.
2. 물질주의성향과 충동구매 및 과시적 소비성향은 세 변수간에 정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질주의성향이 높을수록 충동구매경험이 많고, 물질주의성향과 충동구매경험이 많을수록 과시적 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시소비성향에 충동구매와 물질주의의 하위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질주의의 성공상징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은 생활중심요인, 행복추구요인, 충동구매성향 순으로 나타났다.
3. 물질주의성향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물질주의성향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 분류된 집단간에, 제품평가속성, 점포유형, 구매지역, 고급 백화점의 필요성여부, 구매가격, 의복구매시 동행인 등 7개의 의복구매행동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방문매장수와 지불방법, 충동구매의 요인과 종류에서는 물질주의성향에 따른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